



표본회 소식

<https://biology.jnu.ac.kr/biology/17436/subview.do>

제4호

발행일: 2023년 8월 21일
편집인: 이영웅(표본연구회 회장)
발행인: 김응삼(생물학과장)

2023년 춘계채집

‘표본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춘계채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춘계채집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회의 너나들이(MT)와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작년에 참여했던 표본회 회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진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날에 채집활동, 동종, 파트별 채집 결과 발표와 같은 표본회 주관의 행사가, 둘째 날 오후부터 학생회 주최의 너나들이가 진행되었다.

올해의 채집은 표본연구회가 채집 장소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광양시의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이 선정되었다. 본 소식지를 통해 우리 생물학과에 많은 편의를 봐주신 남부학술림의 주무관 선생님들과, 서울대학교 박필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2023년 생물학과 춘계채집 단체사진

첫째 날 저녁에 전문가 초청 강연이 진행되었다. 우리학과의 성하철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 박희진 교수님, 이지훈 교수님, 그리고 학과장을 맡고 계신 김응삼 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생물학과 행사를 빛내주셨다. 초청 강연은 김응삼 교수님의 생물모방(생태모방)의 개요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채집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두 분의 초청 연사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다. 생물학과 동문 선배님이신 박한수 선생님은 표본연구회의 역사와 표본연구와 생태모방의 구현 방법에 대하여, 한국양서류파충류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계신 문광연 선생님은 한국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하여 30여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선생님들 외에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양서류파충류와 조류(bird) 파트의 채집을 위해 동물행동생태학 실험실의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한달음에 달려오셨다. 또한 강연을 맡아 주셨던 박한수 선생님은 식물 파트와 곤충 파트의 채집에도 선뜻 응해 주셨다.



▲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응삼 교수님, 박한수 선생님 그리고 문광연 선생님께서 열띤 강연 중이다.

2023년, 표본회 조직에 약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있었던 4개의 파트 중 조류(algae) 파트가 사라지고, 식물 파트가 다시 생겨났다. 식물 파트를 도와줄 선배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채집에 성실히 참여해 준 식물 파트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한다. 올해 표본전시회는 '생물과 독'을 주제로 가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각 파트별 전시회 준비 현황과 춘계채집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소식지에 담아 보았다.

양서 파충류 파트

올해 2023년 양서 파충류 파트에서는 '베놈(Venom)과 포이즌(Posion)의 차이'라는 주제로 채집 및 탐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5월에 채집을 간 춘계 채집에서는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를 직접 관찰 및 채집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채집한 종들을 바탕으로 학명과 서식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탐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서 파충류 파트장 선혜윤



춘계채집 양서 파충류 파트원 소감

-채집활동을 통해 양서류가 주로 서식하는 환경과 선호하는 서식 환경을 익히고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개구리 종의 올챙이를 관찰하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양서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이번 채집 때는 파충류 동물을 관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채집에서 파충류를 찾아 관찰하고 서식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다. (조은채)

-채집 활동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 날씨, 환경, 계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물학과 활동은 이론보다 현장 실습으로 배우는 것도 많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김동우)

-채집활동을 통해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생물들을 자연환경의 서식지에서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개구리를 제외한 다른 양서류와 파충류를 관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여러 종의 개구리와 그 올챙이를 관찰하며 각 종의 특징들을 알 수 있었다. (김민승)

조류(bird) 파트

조류파트에서는 탐조활동을 통해 조류의 생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조류의 서식 환경을 오염시키며 조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화학 합성 농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농약이 조류에게 미치는 독성에 대해 공부해보려 합니다.

-조류 파트장 장민주



춘계채집 조류 파트원 소감

-산과 강가에 사는 다양한 야생조류를 관찰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채집 때 처음으로 만난 큰유리새는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 (이수연)

-긴 시간 채집을 진행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성호)

-숲을 돌아다니며 야생속 조류를 관찰한 것이 꽤 좋은 경험이었다. 다만, 숲이나 하천 상류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천 하류나 갯벌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관찰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송지훈)

-숲을 돌아다니면서 조류를 관찰하며 어떤 조류인지 찾아보는 것이 흥미로웠지만 비가 와서 더 많은 종을 관찰하지 못해 아쉬웠다. (조경빈)

식물 파트

포식자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수분 매개자를 유인하며, 때로는 경쟁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식물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이차대사물질입니다. 사람은 실생활에서 이것을 여러 목적으로 이용해 더욱 윤택한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식물 파트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차대사물질의 종류와 효과,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식물 파트장 이현서

춘계채집 식물 파트원 소감

-표본채집 과정을 함께 하신 박한수 선생님이 식물을 채취해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 유익했다. 해당 식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직접 관찰을 진행해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김정인)

-춘계채집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식물을 접하고 알 수 있었다, 식물에 관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재밌었다. (김채원)

-고등학교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실험 위주로 생물학을 배워 다양한 경험이 부족했었다. 이번 춘계채집을 통해 이론으로만 배웠던 채집을 실제로 체험하고 표본을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나유나)



곤충 파트

춘계채집에서 식물파트와 같이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곤충이 가진 화학적 방어기작으로 전시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곤충 파트장 이민후

춘계채집 곤충 파트원 소감

-춘계 채집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채집도 체험해 보고 부원들과 소통하며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김도정)

-직접 보면서 생물을 접하니 생물의 특징이나 자세한 모습을 익히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김채은)

